

몸의 절반으로 살아가는 그와의 6개월

 **경인일보**

장태복 기자



최길용(가명) 씨의 일터는 도로다. 길용씨는 오른쪽 다리와 오른팔만 움직일 수 있기에 오른손에만 장갑을 끼고 일한다.

양평 오일장 날, 도로 옆으로 길게 늘어선 노상 주차장에 출차를 기다리는 차들이 빼곡하다. 그러나 십여 분이 지나도 빠진 차는 고작 두 세대. 나갈 차가 나가야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데 무슨 일인지 돈만 내면 나가는 주차장이 꽉 막혀있다.

또다시 십여 분. 오고 가는 쪽 모두가 주차 정산원만 기다리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 아니 몸을 끌고 온다. 그는 오른팔로 와이퍼에 꽂힌 종이를 뽑고

는 왼쪽 뺨과 어깨 사이에 정산기를 끼운다. 그리고 능숙하게 숫자 버튼을 몇 개 누르더니 돈을 받은 “안녕히 가세요”란 인사와 함께 다음 차로 몸을 끈다.

느리디느린 출차에 경적을 울릴까 고민하던 뒤차도 앞차가 정산하는 광경을 보고는 손을 뗐다. 불편함 때문에 고개를 내밀었던 짜증은 어느샌가 관심으로 바뀌었고, 창문을 내리고 그가 오른쪽 얼굴로만 건넨 인사를 받은 것이 그와의 첫 만남이었다.



길용 씨가 차량 주차된 와이퍼에 정산기에서 출력된 시간표를 꼽고 있다.

“주 54시간 일해도 한 달 100만원… 최저임금 받는 게 소원”

궁금했다. 몸도 성치 않아 보이는 그가 왜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지. 근무 여건은 어떠한 불편한 몸으로 밥을 먹을 시간은 있는지. 그의 직업에 대한 관심은 곧 도로에서의 하루를 듣고 싶단 마음으로 이어졌다. 결국 퇴근길 양평읍 노상 주차장 징수원 일을 하는 최길용(가명) 씨를 다시 찾아가 이야기를 들었다.

올해로 50대 후반인 최 씨는 후천적 장애인이다. 20대 초반에 가정을 이룬 그

는 1986년 대형 트레일러 일을 하다 뇌경색이 왔다. 최 씨는 깨어났으나 더 이상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고, 몇 년 후 최씨의 간호를 하던 아내마저 곁을 떠나며 그는 혼자가 됐다.

그러나 아내가 떠나기 전 최 씨에게 딸이 생겼다. 그는 어머니 집에 어린 딸을 맡겨놓고 본인이 계속 쓰러져 있을 수만은 없었다고 했다. 결국 지난 2000년 남은 가족이 있는 양평군으로 이주해 약 10년간의 재활을 거쳐 기적적으로 몸의 절반을 회복했다.



길용 씨가 식사하고 휴식하는 한 평 남짓한 주차박스. 취재 당시엔 위탁업체에서 전기료를 미납해 단전된 상태였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길용 씨가 주차박스 아래 두꺼비집을 열어 살펴본 흔적이 남아있다.

최 씨는 몸을 회복한 이후 곧바로 구직활동을 시작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는 가족의 미래를 준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랜만에 만난 사회는 녹록지 않았다. 오른쪽 얼굴과 오른팔, 오른 다리만 움직이는 최 씨를 받아주는 회사는 없었다. 그는 군청에 찾아가 장애인 일자리 알선을 부탁했다.

일자리를 구하는 장애인이 적지 않았기에 최 씨가 바로 일을 할 수는 없었다. 그러다 몇 달이 지나 ‘노상 주차장 징수원 일을 할 생각이 없느냐’란 연락이 왔다. 일을 기다렸던 최 씨는 조건을 따질 여유가 없었

다. 그렇게 그는 움직이지 않는 왼쪽 다리에 보행 보조기구를 끼고 도로로 나갔다.

최 씨의 일은 다음과 같았다. 양평읍 노상 주차장 주차차량에 대해 지정한 금액을 징수한다. 차량이 들어오면 시간이 명시된 종이를 끼우고 나갈 때 요금을 받는다. 골목이 혼잡하면 교통정리와 주차유도를 하고 사고가 났을 때 차량통제를 한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3시까지 일한다. 오일장이 서면 토요일도 오후 6시까지 일한다.

비장애인에겐 단순한 일이었지만 뇌경색 장애인 최 씨에겐 쉽지 않은 일이었다. 최 씨가 담당하는 구역은 중앙분리대가 있는 반경 100m가량의 2차선 도로로 읍내에서 가장 유동량이 많은 도로 중 하나다. 오른발로만 몸을 움직여야 하는 최 씨는 남들보다 느렸기에 아무리 노력해도 차량간 이동에만 3배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때를 가리지 않고 차가 나갔기에 정해진 식사시간은 없었다. 그래서 불어도 팬 찌장면을 폭 1m 남짓한 주차박스에 놓고 먹었다. 여름이 되면 45℃가 넘는 아스팔트 지열이 최 씨를 덮쳤다.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 최 씨가 한 주 54시간을 꼬박 일해 받는 돈은 월 100만원 가량이었다. 노상 주차장은 군

이 위탁한 단체가 운영하고 있었고 단체는 최 씨가 징수한 주차비의 53%를 지급하는 구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구조에서 최 씨는 남들과 똑같은 시간을 일해도 법정 최저임금의 절반밖에 벌지 못했다.

게다가 최 씨에게 일정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자 더 이상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구했는데 남들과 똑같은 시간을 일해도 생계급여가 조금 늘어난 꼴이었다.

결국 3년을 참고 일하던 최 씨는 군청과 위탁단체, 군의원을 찾아가 최저임금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들 모두가 최 씨가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게 비정상적이란 걸 인정하고 “해결해 줄테니 기다려라”는 같은 대답을 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그들의 대답과 최 씨의 임금은 변하지 않았다.

‘그거 보도해도 바뀌지 않는다’

최 씨는 듣는 이가 막막할 정도의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일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라’는 타인들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다.

난 최 씨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큰 기대는 없었다. 단지 내가 그의 이야기를 공

금해하자 ‘신문 나가면 잘릴지도 모른다’는 자조 섞인 말을 하면서도 그가 내준 용기를 외면할 수 없었다.

이후 곧바로 노상 주차장 위탁단체에서 항의 전화가 걸려 왔다. 매년 해오던 방식이며 내부 사정을 알기나 하냐는 투였다. 평소 알고 지내던 취재원에게도 “아는 후배가 단체장으로 있으니 건들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다. 지역에 오래 근무한 다른 기자는 “그거 보도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조언을 했다.

이전부터 이어져 오던 상황이라면 왜 바뀌지 않았는지 궁금했다. 군이 그간 진행한 공영주차장 용역 결과를 살폈다. 노상 주차장의 연간 수익은 약 1억500만원이었다. 많은 수익은 아니었으나 수탁료를 제하고도 노동자 4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을 만큼의 돈인가 싶었다.

취재를 시작하자 위탁단체는 “우리도 피해자다. 적자 사업을 억지로 떠맡고 있다”고 호소했고, 군은 “주차장은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 해결될 것이다. 노동자는 우리가 채용한 게 아니라서 할 말이 없다”는 답을 내놨다. 심지어 보도 한 달 뒤 이어진 군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의회는 “적절하게 대응해서 우리 군의 방식이나 노력을 잘 홍보를 해주길 바란다”고 집행부를 두둔했다.



도로에서 주차영수증을 확인하는 길용 씨. 반대편 차선으로 빨리 넘어가기 위해 중앙분리대의 맨 윗줄을 빼놓은 것이 보인다.

벽을 마주한 기분이었다. 취재 내내 지역 곳곳에서 눈총을 받았다.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라고 묻는 최 씨에게 군과 같이 ‘해결해 줄 테니 기다려라’는 대답을 차마 할 순 없었다.

취재가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고맙게도 최 씨에게 지역의 관심이 모이기 시작했다. 군 내 9곳의 노조가 성명서를 발표해 최 씨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임금 보전을 촉구하고 군의 책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주민들도 최 씨가 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기 시작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

여라도 본인의 필요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군의 답변에 분노한 주민들의 여론이 모였다. 주민들의 여론이 모이니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움직였다. 그들은 노동자들의 임금보전 방안과 주차장의 흑자경영이 가능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결국 보도 4달 후, 경기도의회 의원과 경기도 노동국 노무사의 현장 실태조사가 진행됐다. 이들은 최 씨를 비롯한 노동자의 근무환경, 계약 등을 확인하고 최저임금 보전을 위해 대리진정을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무언가 해결될 것만 같은

희망이 보였다.

그러나 진정은 진행되지 않았다. 노무 사는 노동자들이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며 진정을 원치 않는다고 내게 말했다.

이해가 되지 않았던 난 곧바로 최 씨를 찾아갔다. 이제 거의 다 왔고 법적으로 3년간 못 받은 돈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데 무얼 기다리냐고 물었다.

그러나 최 씨의 대답은 날 씁쓸하게 했다. 그는 “진정하는 것이 무섭다. 뭔가 법적으로 진행은 되겠지만 군에서 우릴 해고할 게 뻔하다”며 “매번 해결해 준다는 말만 반복하고 바뀌는 게 없다. 우리 여기서 잘리면 일할 곳이 없다”고 토로했다.

최 씨와 노동자들은 군이 먼저 이 상황을 해결해 주길 기다리고 있었다. 뇌경색 장애인 최 씨와 80세가 다 되어 가는 다른 근로자들은 실직을 우려해 군과 싸우는 것을 원치 않았다. 사회가 정한 당연한 권리마저 그들에겐 고민해야 할 대상이었다.

다행히 군은 그들이 진정을 넣기 전에 움직였다. 위탁단체 변경과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게 이루어지는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답했다.



길용 씨의 일터인 양평읍 일원 도로. 중앙분리대가 길게 늘어서 있어 주차요금 징수원이 반대편으로 넘어가려면 꽤나 많은 거리를 걸어야 한다.

그다음 달부터 노상 주차장에서 노동자들을 볼 수 없었다. 현 위탁단체가 계약을 끝냈기에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이다. 최 씨는 노상 주차장을 새로 맡을 위탁단체가 나타날 때까지 출근을 기다리라는 답을 군으로부터 받았다고 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다가올 수 있게 해주는 것

2021년 1월, 새로운 위탁단체가 등장했고 최 씨를 다시 고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심지어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한다는

말까지.

최저임금이 보장된 이후 그를 만나러 가는 날, 최 씨에게 선물할 새 업무용 조끼와 그를 응원하는 사람이 사준 새 패딩을 들고선 그에게 갔다. “축하한다”, “잘됐다” 등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던 찰나 그의 얼굴을 맞대자, 그가 웃으며 다가왔다. 그때 이 6개월이 그의 표정을 바꿨다는 걸 알았다.

이유를 알 수 없던 불편함은 관심이 되었고 시선의 변화로 이어졌다. 최근 최 씨는 어디선가 “전동킥보드를 타면 일이

더 빠르고 편해지지 않겠느냐”란 말을 듣고 킥보드를 구매했다. 누군가 왼쪽 다리를 끌던 그를 위해 함께 고민해 주었다는 사실이 벅찼다.

이제 그 도로 위에선 늦은 주차비 징수 업무 때문에 울리는 경적이 줄어들었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일반인의 걸음걸이보다 빠르게 다가오는 최 씨의 업무속도도 그 이유지만 이제 ‘지역’이 그의 삶을 알고 품기 때문이 아닐까.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그가 다가올 수 있게 해주는 것, 언론이 그 벅참의 통로가 되길 바란다. 📍

경인일보 정태복 기자